

## 호남권 최대 투자매칭쇼 '오픈'

전북-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투자로드쇼 공동개최  
예선통과 20개 창업기업 참가



폭염을 견뎌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남원 양계 농장에서 닭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호남권 최대 규모 스타트업 투자매칭쇼가 열렸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26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북-광주 유망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2018 호남권 벤처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로드쇼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호남권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광주센터와 6개 대학 창업지원단이 함께 한 이날 벤처투자로드쇼에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20개 창업기업이 참가했으며,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과 엔젤투자자 20여명이 기업들의 IR(투자유치설명회)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다. IR 후에는 34명의 전문가와 창업기업의 1:1 투자상담이 이어졌고, 투자전략에 대한 멘토링도 진행됐다.

전북센터는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와 함께 사전평가를 통해 선발한 총 1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료제작과 모의IR 등의 투자유치 과정을 밀착 지원해 왔다. 기업에 나선 전북권 스타트업은 ▲

전북센터(엔시팅, 디엔티) ▲전북대(아크컴퍼니, 헤세테크) ▲전주대(에어랩, 비엔지샵) ▲원광대(달리셔스, 단색, 블랙션, 전주제과) 등 총 10개사다. 전북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도내 창업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주시, '속 깊은 복지'·'견고싶은 도시' 구현 매진

민선7기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4대 복지분야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쓰레기·악취·미세먼지 등 3대 환경 분야 대책마련 및 민원해소 대책도 집중

전주시가 민선7기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와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견고 싶은 도시' 구현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노인 등의 자립생활 구축, 각종 폐기물 및 악취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정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6일 열린 복지환경국 정례브리핑에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4대 복지지원정책과 쓰레기·악취·미세먼지 등 3대 환경정책분야의 클린환경 조성을 골자로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센터와 발달장애

인훈련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등 장애인의 삶을 바꿀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년의 인생이모작 통합지원센터 구축과 문화·여가·의료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농촌 노인들을 위해 이동복지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정책으로는 직장맘·싱글맘 지원체계 강화, 여성안심구역 시범사업 추진, 기존 성폭력 방지법의 한계에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젠더폭력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는 아동 보육을 개인과 가정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보육정책을 공격적으로 확대, 전주시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여 출생장려금 지급 대상의 소득 및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첫째아이부터 출생축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계속해서,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및 직영구간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견고 싶은 도시' 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동시에, 재활용을 선도하는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전주시의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종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이 많은 효자동·삼천동 지역의 종합리싸이클타운 음폐수관과 혁신도시 가축분뇨 악취발생 지역을 집중 관리,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기상대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다들마탕'도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 20㎍/㎥ 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호철 기자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 社 告

## 2018 제8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일시: 2018년 7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8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를 오는 28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전주매일신문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김진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를 선언했다. 애초 본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난항 등의 이유로 늦춰졌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3일 시대를 상징했던 노회찬 의원이 작고했다"며 "고 노회찬 의원은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울어줬던 정의로운 분이였다"고 추모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이날 회의를 시작했다.

본회의에는 노정희·이동원·김진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재적인원 299명 중 271명이 참여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노 후보자는 228명의 찬성표(84.13%)를 얻었다. 반대 39표, 기권은 4표에 그쳤다.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91.14%),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3~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소득세 탈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뉴스

더불어 행복함, 더 좋은 정읍! Happy Together, Better Jeongeup!

색이 아름다운 정읍, 자연과 함께합니다

# 정읍 여름 여행

정읍시 JEONGEUP-SI